

초기불교의 사회학?

-*The Sociology of Early Buddhism*에 대한 서평-

유승무(중앙승가대)

1

이 글은 그렉 베일리(Greg Bailey)와 이안 마벳트(Ian Mabbett)의 공저인 『초기불교의 사회학(*The Sociology of Early Buddhism*)』(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에 대한 서평이다.

서평 제목의 끝에 달린 의문부호(?)가 시사하듯이, 주로 사회학을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적 현실을 분석하는 분과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경험적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상상되는 B.C 4~5세기 경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초기불교를 사회학적 관점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다소 의아스러울 것이다. 게다가 제1 저자인 베일리는 종교학으로 석사를 받고 호주 멜버른(Melbourne) 대학에서 인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종교학자이고 공저자인 마벳트는 호주 모나쉬(Monash) 대학에서 불교의 역사와 사상,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 식민지시기 이전의 인도 및 동남아시아 역사 등을 주로 연구하

는 역사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즉 공동연구자 모두가 사회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이 과연 사회학적 연구일까라는 의구심은 더해진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과 불교 발생의 관계, 즉 사회적 조건이 종교(여기에서는 불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부분과 승려의 사회적 역할 즉, 불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의 구조는 전형적인 종교사회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학적 연구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책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인과관계를 주로 계층구조 및 그 역학관계, 다시 말하면 불교발생 당시 인도 북부의 사회구조와 그 변동을 추동하는 계급 및 계층 구조와 그 변동을 불교와 연관하여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엄연한 경험적 연구 성과(이 책의 결론에서 유추가 아니라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연구임을 설득력 있게 재차 밝혀 두고 있다)이며,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불교사회학적 성과다. 이는 불교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가 이 책을 서평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 밖에도 이 책은 불교사회학과 연관된 네 가지 큰 미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불교의 발생과 관련된 제반 쟁점의 사회과학적 근거를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불교의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을 해결해 주는 초기불교의 사회학적 연구서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불교사회학의 모천회귀적 욕망을 넉넉히 충족시켜 주는 단비다. 둘째, 불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도 드물거니와 그나마 극소수의 연구 성과조차도 불교사회사상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경험과학적 자료에 기초한 진정한 의미의 불교사회학적 연구 성과다. 셋째, 이 책은 불교사회학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 즉 ‘은둔’과 ‘적응’의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정밀하게 논의하고 있어서, 한국불교 고유의 은둔의 전통과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게는 커다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넷째, 앞에서 이들의 연구 경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이 책의 저자들은, 통상 고대문명의 문헌자료에 해박하지 않은 사회학자 일반과는 달리, 모두 인도 고대문명 및 그 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일리는 산스크리트 문헌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는 이 책에서 제시된 고대 문헌 자료와 그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며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의 진가를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우리는 우선 이 책의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한 다음, 그러한 내용이 마지막 미덕을 제외한 세 가지 미덕과 각각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언급함으로써 불교사회학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도 불가피하게 몇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서평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부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책은 다음의 구절로 시작한다: “만약 어떤 스님이 세속의 찌든 때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면, 만약 그 스님이 생계의 그 어떤 원천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있다면, 그래서 만약 그 스님의 삶이 자유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분의 삶의 흔적을 찾아가기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위의 구절에 스며들어 있는 총체적 초탈(total detachment)의 관념은 초탈, 세속의 단념, 세속적 관계로부터의 자유, 독신 등 초기불교와 연관된 양비양스(ambience)를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체의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승단은 사회와 빈번하게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하게도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체제 내에 통합되어 있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근원

적인 분열(fundamental dichotomy)이 발생한다. 이 책은 어떻게 불교가 한편으로는 승단으로 하여금 출가와 초탈의 실천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승단이 사회, 문화, 혹은 정치의 역동적 일부로 남아 있는가를 설명하려는 사회학적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책은 서론에서 개념적 전제와 방법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는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초기불교를 ‘사회에 의존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를 필자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해한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교는 크게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얼굴이 바로 금욕주의 얼굴(은둔의 이미지)이고, 두 번째 얼굴이 도시생활(공적 영역)에의 참여(혹은 정치적 개입)의 얼굴이며, 세 번째 얼굴은 민속종교라는 넓은 의미의 불교 얼굴로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 불탑 건립, 치병이나 점술, 그리고 승려와 평신도 사이의 잡다한 신변잡기가 모두 불교이다. 그런데 각각의 얼굴은 자기 완결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내적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세 얼굴 각각의 잣대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징을 포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 책의 문제제기 즉, 금욕주의(혹은 은둔)와 도시생활(혹은 세속적 삶에의 참여) 사이의 상호모순을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상업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경전 내용과 상업적 가치에 저항하는 경전적 근거, 도시생활을 정당화하는 경전적 근거와 부정하는 근거, 중앙집권국가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그것에 저항하는 근거, 탈부족 문화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부정하는 근거, 고통 치유의 불교와 그 체제 정당화의 기능과 체제 저항적 기능, 인과관계의 혼란 등을 모두 파헤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러한 모순적 내용이 경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것은 제1장 서론의 전반

부에서 논의한 근원적 분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와 이론적 관점을 확보한 다음, 이 책은 본격적으로 불교사회학적 분석으로 들어간다. 이 책의 본론은 크게 두 가지 주제, 즉 불교발생의 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부분과 불교를 세계종교로 부흥시킨 주체인 승려의 사회적 역할 즉 담지자로서 승려의 사회적 중개역할 등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불교가 존재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 승단이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맥락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엘리트, 경제적 조건, 도시화와 거대 규모의 정치구조의 발달, 브라마와 그 경쟁자들, 그리고 민간신앙과 우주론 등과 같은 소주제들이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제2장에서는 불교발생 당시 인도 북부의 다양한 사회엘리트와 특정한 계층 내부의 다양성까지 검토한 다음 그러한 복합사회는 그 내적 다양성의 통일을 위해 포괄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고 있었을 것인데, 불교가 그러한 요구의 충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검증한다. 이러한 관심은 제3장으로 이어지는데, 제3장에서도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상인계층과 농민층과 불교의 연관성, 즉 상호지원 관계를 소상하게 밝힌다. 그리고 제5장에서도 당시 지배세력이었던 브라마 계층과 경쟁관계에 들어선 사회계층 등을 밝힘으로써 당시의 브라마적 계층 질서의 변동을 설명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마도 제4장, 즉 도시화에 따른 정치적 공동체의 발전과 그 급효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제6장, 총체적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도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사회의 계층구조 및 그 변동을 자세하게 논의한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개자로서 승려의 역할을 각종 경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나간다. 이 부분에서는 불교발생 당시 인도북부의 유행하는 성자들의 존재 및 생활방식, 중개자로서 승려의 역할, 『법구경』과 비구의 이미지, 경전에 나타

난 중개자의 역할, 그리고 재보시와 범보시의 교환, 즉 사회적 교환 등과 같은 소주제들이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두 부분을 굳이 불교와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있는 불교사회학적 관점으로 다시 분류하면, 전자(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부분)는 불교가 처한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사회적 맥락이 불교(혹은 불교의 변화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명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불교의 핵심 담지자인 승려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불교가 어떻게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는 사회적 조건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불교의 발전을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불교의 등장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불교(혹은 승려의 사회적 역할)를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그로인한 사회변화 및 다양성을 설명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3

주지하듯이 종교사회학은 종교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에도 관심을 갖지만, 사회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도 하고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도 한다. 통상 전자는 주로 종교공동체 내부의 제도, 조직, 인간관계, 고유한 문화 및 전통 등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지만 후자는 종교와 사회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진다. 그리고 종교와 사회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느 한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종교사회학적 주제가 탄생한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조건이 특정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종교사회학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사회통합(및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하는 종교사회학이다. 이렇게 볼 때, 기원전 5세기경 인도 북부의 사회변동이

불교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위의 구분에서 ‘전자’)는 종교사회학의 한 축을 이루지만, 불교(혹은 승려)의 사회적 역할을 논하는 것(‘후자’)은 불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종교사회학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룬다. 이는 이 책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종교사회학적 주제를 다루는 불교사회학 연구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책의 불교사회학적 학문적 의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전 세계 불교학계뿐만 아니라 한국불교학계에서도 불교사회학적 연구는 매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교사회학적 연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불교사회학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마저도 양적 숫자도 극히 적지만 질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몇몇 학자들이 경험과학적 차원에서 불교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그들의 성과도 질적 측면은 의문을 수반한다. 특히 질적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경전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다는 식의 역사학적 접근이나 그러한 사료의 사상적 가치를 논하는 사회사상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교사회학은 과학적 객관성을 상실한 호교론적 연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불교사회학과 연관된 몇몇 방계 연구도 있다. 예컨대, 불교경제학적 연구, 불교정치학적 연구, 불교경영학적 연구, 불교사회복지학적 연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조차도 말 그대로 방계 연구일 뿐 불교사회학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불교사회학은 미개척지나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러한 불교사회학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실한 경험과학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책은 향후 불교사회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책은 실천적 차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불교의 사회참여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은둔의 유령’이 나타난다. 그리고는 자신(은둔)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적자이고 사회참여는 서자라고 강변하면서 거드름을 피기도 하고, 스스로를 불교의 몸통으로 과시하면서 사회참여를 ‘깃털처럼 가벼운’ 그 무엇이라고 조롱한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한국불교가 이를 실증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즉 ‘은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헤게모니로 치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불교에 덧씌워진 ‘은둔’의 이데올로기는 한국불교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공영역 및 공론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하는 정치적 효과로 수렴될 뿐만 아니라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사상에서 기인한 불교 본래의 사회성마저 자발적으로 탈각시키도록 강제한다. 그 결과 근현대 한국사회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등 공적 기구에 의한 국가정책 형성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교육, 복지, 병의료, 심지어 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공적 영역 속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수요는 불교 이외의 종교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 기독교 라이트가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불교를 지배하고자 했던 조선조 사대부,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고자 했던 일제 식민주의 통치자, 대한민국을 기독교화하고자 했던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19세기 동양사회를 식민지화하고자 했던 서구 제국주의자가 바라마지 않았던 지배의 의도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불교에게 붙여진 ‘은둔’의 꼬리표(label)는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하고 조작한 지배자의 생산물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한국불교에게는 자기소외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서구학계에 소개되고 연구되어 온 불교의 지배적 이미지는 바로 은둔의 이미지였다. 실제로 불교의 핵심 담지자(혹은 담지계층)로서 승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종교사회학(필자는 이를 불교사회학이라 부른다)의 고전적 주제였다. 특히 베버(Max Weber)

는 승려 계층의 사회적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구체적으로 베버는 ‘내세지향’, ‘세계도피’, ‘현세거부’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했다)과 함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시민사회를 ‘주술의 정원’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불교가 사회의 근대화(혹은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 이해는 불교의 한 측면 즉, 은둔의 얼굴만을 부각시킨 절름발이 연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초기불교에서 승려의 사회적 중개 역할을 문헌자료(경전적 근거)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한국불교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즉 이 책은 한국불교로 하여금 전통적인 은둔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초기불교 이래 불교 본래의 진면목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그 동안 서구 학계에서 일반화되어 온 왜곡된 불교 이미지를 교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책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그러한 장점을 갖는다고 해서 이 책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의 특징이 강한 만큼 이 책의 결함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첫째, 이 책은 승려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지만 그것이 독립변수로 설정되어 사회의 다양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책이 한편으로는 불교와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관계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문적 한계를 내포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승려의 사회적 실천과 사회변화의 관계를 실천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줄 만한 지렛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 책에서 후반부는 승려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적 중개로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학적 의미를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불교의 사회통합적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기능주의적 해석에 머물게 된다. 물론 이 책의 서론에서는 승려(혹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당시 새로운 사회질서를 긍정하는 역할(사회체제 유지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과 그것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 그리고 두 측면을 모두 강조하는 주장 등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후반부의 대체적인 시사점은 사회통합적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불교 내부의 사회현상조차도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보다 잘 이해되기도 한다. 게다가 특정한 시대, 특정한 국면에서는 불교가 사회변동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사회변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의 기능주의적 시각은 종교사회학적 현상 중에서 갈등론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갈등적 상황에서의 실천적 함의도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이 책은 초기불교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불교 사회학의 시원을 규명하는 의의를 갖지만 동시에 사회는 늘 변화하는 그 무엇이라면 이 책이 변화, 즉 초기불교의 시대적 조건과는 전혀 다른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와 대승불교의 한 유형인 한국불교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게다가 사회학이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적 현실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볼 때, 초기불교와 관련된 경전적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이 책은, 오늘날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 수밖에 없다. 이는 이 책이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의 사회참여나 사회적 실천과 관련해서는 제한적 함의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불교 발생 당시 인도북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불교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승려의 삶(의 흔적)을 추적함으로써 초기불교 즉 불교의 시원과 관련된 사회학적 성과를 제출했다. 서평자는 이 책의 통찰과 치밀한 논증에 감탄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것을 서평자의 천학비재의 서투른 솜씨로 다 녹여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믿는다. 이 책의 가치는 오로지 독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다만 서평자는 이 책에서 서평자가 얻은 학문적 수확과 새로운 발견의 희열을 수많은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불교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을 가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일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